



나는  
우울할 때마다  
요리를 한다

나는  
우울할 때마다  
요리를 한다

김현정의 요리 이야기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차례

<b>정성담은 해물 스파게티</b>	<b>6</b>
<b>한 달에 한번은 꼭, 영념차킨</b>	<b>8</b>
<b>야채 듬뿍 불고기</b>	<b>10</b>
<b>보들보들 계란찜</b>	<b>12</b>
<b>아침을 여는 꼬마김밥</b>	<b>14</b>
<b>의외로 만들기 쉬운 오므라이스</b>	<b>16</b>
<b>만능반찬 계란말이</b>	<b>18</b>
<b>심심할 때마다 꺼내먹는 햄박스테이크</b>	<b>20</b>
<b>부들부들 연어회</b>	<b>22</b>
<b>말이말이 월남쌈</b>	<b>24</b>
<b>무더위야 사라져라! 백숙</b>	<b>26</b>
<b>야채가 숨어있는 고기말이</b>	<b>28</b>
<b>비오는 날엔 칼국수</b>	<b>30</b>
<b>매콤달콤 닭도리탕</b>	<b>32</b>

### 김현정

1972년 진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살고 있다.

언어장애를 갖고 있지만 남편 우정현은 잘 알아 듣는다. 요리에 관심이 많다.

곤지암에서 도자기를 배운 적이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배우고 싶은 게 소망이다.

